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1년 3월 제 **115**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 ‘본원 찾는 환자, 50대 미혼·무직이 가장 많아’ 2016년부터 5년 간 요셉의원 환자상담 분석



지난 5년 간 본원을 찾은 환자들은 직업이 없고 의료수급을 받는 50대 미혼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기 상담 결과 치과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수가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 환자가 많은 것은 초기 상담을 받는 연령층이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들의 거주지역은 영등포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이

① 영등포 쪽방촌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② 본원 사회사업실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 ③ 본원 치과 진료. ④ 환자를 진료하는 신원식 의무원장. ⑤ 환자 진료 카드. ⑥ 의무기록실에 비치된 환자 의무기록지.

70%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 기타 다른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본원 사회사업실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본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들의

초기 상담 2495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보험 형태에서는 의료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고, 결혼 상태는 미혼, 가족관계에서는 ‘단절’이라는 응

115호  
주요  
소식



1

본원 환자상담 분석



6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8

병원 소식



12

봉사자 코너



14

후원의 손길



[표 1] 초기 상담 환자의 연령대 별 현황 (2016~2020년)

구 분 년 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연도 별 · 연령대 별 환자 분포도
2016	16	13	37	87	236	155	18	11	
2017	12	9	24	91	242	173	31	4	
2018	9	21	37	77	229	142	23	6	
2019	4	30	44	94	221	130	13	5	
2020	1	10	20	45	98	67	6	2	

[표 2] 초기 상담 환자의 거주 별 형태 (2016~2020년)

구 분 년 도	전세	월세	임대 (sh/lh)	시설	노숙	고시원	쪽방	기타	연도 별 환자 거주 분포도
2016	6	159	40	69	104	96	16	83	
2017	17	193	27	44	77	79	34	115	
2018	11	161	26	45	75	108	42	76	
2019	12	192	26	38	41	115	46	73	
2020	9	97	9	17	16	53	18	28	

답이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에서 ‘노숙인’이란 응답은 2016년 당시 조사 대상자의 18% 남짓했으나, 2018년 14%, 2019년 7.6%, 2020년에는 6.5%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노숙인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리 노숙인’을 말한다.

또 초기 상담 환자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여성 환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다.

### 첫 내원 환자 상담에 지원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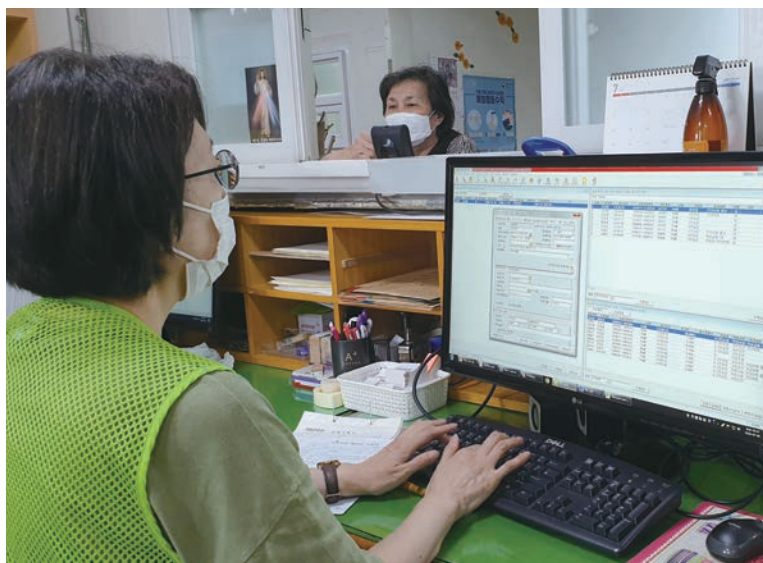
본원 사회사업팀에서는 처음 내원한 환자들과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성별/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형태 ●의료보험 상태 ●결혼 상태 ●가족과의 관계 ●진료과목을 확인한 뒤 자활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순점 본원 사회사업실장은 “환자가 처음 본원에 찾아오면 질병 상태와 건강보험 유무, 경제 상황과 가족 상황 등을 파악해 환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고, “2년 뒤에는 다시 재상담을 실시해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변화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회사업실의 상담 건수는 초기 상담과 재상담을 합해 연간 680명 선. 초기 상담은 2016년 573명에서 2017년 586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44명과 543명으로 약간 줄었다. 본원 신규 상담 건수가 이처럼 연평균 550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외부 도움이 필요한 빈민층이 여전히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가족과의 ‘단절’ 다소 줄고 ‘연결’ 늘어나

본원을 찾는 환자들 사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일용직, 자활, 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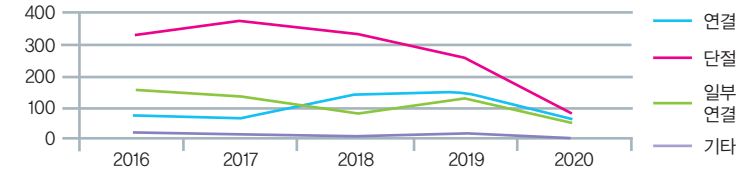


이번 조사 분석에서 본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는 연평균 550명 선으로 집계됐다. 본원에 환자가 처음 찾아오면 사회사업실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 의무기록팀으로 상담 자료를 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카드를 발급해 준다.

[표 3] 초기 상담 환자의 결혼 상태 현황 (2016~2020년)

구분 년도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동거	기타	연도 별 환자의 결혼 상태 현황
2016	9	279	172	33	26	9	5	
2017	54	253	214	34	21	2	8	
2018	60	273	161	21	18	3	8	
2019	71	272	153	16	18	8	5	
2020	45	112	77	3	6	3	3	

[표 4] 초기 상담 환자의 가족 연결 형태 (2016~2020년)

구분 년도	연결	단절	일부 연결	기타	연도 별 환자 거주 분포도
2016	95	316	156	6	
2017	85	375	124	2	
2018	130	316	98	0	
2019	152	262	128	1	
2020	85	95	69	0	

기초수급, 무직 등으로 분류한 직업 항목에서 ‘무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2016년과 2017년에 55%였다가 2020년 30%로 점차 줄었으나, 기초수급자가 2016년 17.6%에서 2020년에는 45%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용직을 찾아 일하거나 자활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평균 25%로, 네 명 중 한 명이 자활의 지를 지니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결혼 상태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 대상자들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미혼’이라고 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했고,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 사별한 경우가 평균 40% 정도로, 10명 중 아홉 명이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모 형제나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다. 상담자 가운데 가족과 ‘단절’됐다고 답한 사람은 1364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응답자 547명과 ‘일부 연결’이 된다고 답한 575명을 합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절’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10%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거리 노숙은 점차 감소

초기 상담자들의 거주 형태는 ‘월세’가 평균 30%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숙인 수는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제 본원 상담에서도



본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25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내원 1, 2년이 지난 환자도 같은 재검사를 통해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사진은 현미경 검사 모습.

2016년 104건이었던 ‘노숙’이 2018년 75건, 2019년 4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조사한 노숙인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의 거리 노숙인은 743명으로 영등포구에 약 11%(89명)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47%(42명)가 영등포역 주변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본원 조사에서 거리 노숙은 줄고, 고시원과 쪽방 거주는 다소 늘어나는데 비해 LH공사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거주 및 복지시설 거주는 각각 20여 건과 40건 내외로 담보 상태거나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문상운 사회사업실 담당자는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일정 자격이 갖춰져야 하고, 복지시설 거주는 급주 등 제약이 있고, 고시원도 공동시설 사용에 주의가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내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본원에서는 이런 이들을 포함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와 함께 의류와 신발을 제공하고, 각종 자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영등포 쪽방촌 모습, 오른쪽은 코로나 사태 전 본원에서 빵과 음료를 나눔하고 있는 장면.

필요한데 비해 월세와 쪽방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의료급여 환자도 많이 찾아

초기 상담자들의 의료보험 상태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보험 상담자가 매년 52명~77명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환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정부 지원 복지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본원에서는 이런 무보험 환자들의 상황을 파악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공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도 본원을 많이 찾는다. 지리적 여건, 사회적 소외감, 본원에 대한 친근감 등이 이유로 꼽힌다. 2018년

부터는 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일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수보다 이런 의료급여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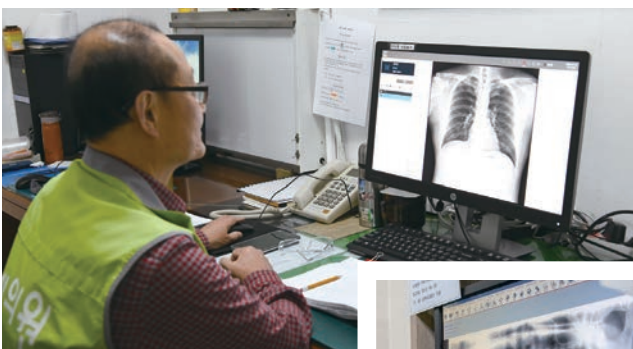
김 실장은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내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환자들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틀니 치료,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 줄 계획”

처음 내원하는 환자들이 찾는 진료과는 치과가 가장 많아 전체 초기 상담자의 52~58%를 차지했다. 본원 치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는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틀니를 해 주고 있다.

틀니는 고가의 진료여서 가난한 환자들이 자기 돈으로 해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틀니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기저 질환 검사를 해야 하고 상태에 따라 기존 치아의 정리가 필요해 전체 진료를 완료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기 상담을 받은 여성 환자가 전체의 1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은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립을 할 수 있어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하고, “본원을 찾는 여성 환자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가난한 사람들로, 부인과 질환을 포함해 큰 질병이 있으면 본원에서 제후 병원으로 전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다”고 밝혔다.



본원은 임상병리실과 영상의학실을 두고, 초음파 진단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확인한 다음,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등 심층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보내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 위는 영상의학실에서 촬영한 X선 영상, 아래는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을 찍은 파노라마 사진.





## 꼭방촌 향기

# “환자들의 아픔 함께 나누고 토닥여줄 수 있기를”

언젠가 주님 앞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서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마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전 주변 일상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편으론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제한을 받는 불편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요셉의원을 찾게 된 때는 십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아빠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아내 소피아가 성당에서 가지고 온



박기성

본원 치과봉사의

‘아버지 학교’ 개설 안내문을 보고 용기를 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육을 마칠 무렵 팀 조장인 김 아브람 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 그 온전한 실천’(가톨릭사회복지회 발간) 책자에 요셉의원의 태도와 근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온 봉사자들의 활동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봉사라면** 치대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단기 무의촌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전부였으나,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원을 하고 점차 안정을 찾은 뒤, 마침 요셉의원에 대해 기록한 그 책자를 접하고는 요셉의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원 봉사자들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부문에서 장기간 봉사를 해오고 계신 분들로, 그 용기와 헌신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터전 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보면 어찌 그토록 힘든 여정을 걸어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이가 많은 적든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들은 대체로 어려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되거나, 성인이 돼서는 사업 실패와 이혼 등에 따라 대다수가 가족과 단절된 아픔을 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울분과 자포자기에 빠지다 보니 술에 찌들고 몸은 망가져 당뇨나 고혈압, 관절 통증,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습니다. 영양도 좋지 않은 데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치아도 쉽게 상하게 됩니다.

**요셉의원에서는** 용기를 내어 찾아온

이런 분들에게 무료 치료를 해주고 옷도 내어주면서 정신적 자활을 돕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덜어주고 나눔을 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중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병원 측이나 환자들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는** 11년 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 사회성 교육을 위해 집에서 1년 동안 보살폈던 엄지가 돌아왔습니다. 9년 반 정도의 안내견 일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한 것이지요. 엄지로서는 눈에 백내장이 생겨 은퇴한 것이지만, 우리 가족은 ‘금의환향’한 것처럼 엄지를 환대하고,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엄지에게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저녁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평저울 위에 깨끗한 그릇을 올려놓고 그릇 무게를 영점 조정해 다음 일정량을 채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점 조정이 돼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보면 언뜻 내 마음도 그 그릇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그릇도 그 안에서** 울퉁불퉁 솟아 나오는 욕심과 고집, 허영을 없애고 매일 깨끗하게 닦고 유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서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마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2021.01~02



##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 소아과 진료 1년 만에 다시 시작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수준이었으나 3월 들어서면서 5000명 정도로 다시 늘어나,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간 통금과 지역 간의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필리핀요셉의원에서는 작년 3월에 중단됐던 소아과 진료를 1년 만인 3월 1일에 다시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 조치와 주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진료를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주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아동 급식을 하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안부를 묻던 중 심하게 여윈 여자아이(11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어김없이 결핵 판정이 나왔고, 동생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엄마는 저녁때 온다고 했다. 다행히 집이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찾아왔다. 하루 종일 일을 한 듯 땀에 젖은 모습에 고단함이 느껴졌다. 자녀가 모두 다섯 명인데, 하루 일당은 우리 돈으로 1만 원 정도인 400페소(1페소=약 23원) 가량이라고 했다. 애가 결핵에 걸렸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저 엄마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오 주님, 왜 이리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그 어머니는 짙어진 삶의 무게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듯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 이유는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핵 약에 대한 처방을 설명하고 복용법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1



2



3



4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는 가운데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어린이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아과 진료를 재개해 결핵환자들을 찾아냈다. 사진 ①과 ②는 소아과 진료 모습. 사진 ③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사진 ④는 급식소에서 조리한 밥을 집으로 가져가는 어린이.

진료를 시작한 첫 날인 3월 4일의 진료 인원 60여 명 가운데 다섯 명이 결핵으로 진단됐다. 결핵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마르고 여위었으며, 신발조차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다. 그중 한 아이는 엄마가 아닌 언니가 데리고 왔다. 언니 나이가 한 12살 정도 밖에 안 돼 보여서, 엄마가 오지 않으면 결핵 약을 줄 수 없다고 일렀다. 결핵 약은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먹어야지 중간에 중지하면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일러졌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니 다음 주에 병원으로 보내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피딩 센터에 아이들을 보내라는 안내도 해주었다. 그러자 그 엄마는 고맙다고 뺨뺨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코로나 상황으로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진 이곳 아이들은 기본적인 진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 비누도 만들고, 채소와 닭·염소 키우기에 도전

최근 이곳 필리핀의 식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1kg에 270페소였던 것이 지금은 320페소나 한다. 몇 달 동안 50페소나 오른 것이다. 지금은 좀 안정세를 찾았지만 올해 초에는 채소 가격도 두 배로 뛰었다. 매일 250명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깃덩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며 작년에 시작한 밭농사는 망했다. 태풍과 계속되는 폭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보지만 농작물들도 농부가 초짜임을 아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 2월 다시 이것저것 심어보았다. 양배추, 당근, 토마토 등등 이번에는 더위에 강하고 병충해가 적다고 하는 채소들 위주로 심었는데 올해는 잘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닭, 염소 농장도 시작했다. 염소는 크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가축이고 번식도 잘 해서 이곳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마당에 잡풀들이 무성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실제로 염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잘 뜯는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덩불까지 말끔해졌다. 진작에 이 생각을 못 하고, 풀 깎느라 고생하고, 비싼 예초기 사서 몇 달 만에 고장 난 생각을 하니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 양계는 병아리 사다가 키워서 나중에 급식 아이들에게 신선한 계란과 고기를 제공해 줄 것이란 부분 기대를 안고 시작했다.

한편 그동안 음식 조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은 그냥 땅에 버렸었다. 이곳에 정화, 하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



사진 ①은 병원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염소 두 마리. 넓직한 부지에 풀이 무성해 염소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사진 ②는 폐식용 유로 만든 큼직한 비누들. 값싸게 내놓자 금세 팔려나갔다.



만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 한 방 송에서 폐기물로 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돼 따라서 해보았다. 생각보다 쉬웠다. 그동안 오

염시킨 땅을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방법을 찾았으니 다 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비누 한 개에 15페소라고 내놓자 마자 다 팔렸다. 버리던 폐기물이 이제는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게 되었다.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현황 및 후원계좌

### + 2021년 1~2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 10명)

- 김익환 ● 남용현 ● 남크리스티나 ● 오은영
- 임애숙 ● 정은주 ● 조은서 ● 최인영 ● 하지나 ● 황홍동

### + 2021년 1~2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422명 ● 약처방 257명
- 급식 8,893명

###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1년 2월 현재)

- 진료 81,349명 ● 급식 350,915명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 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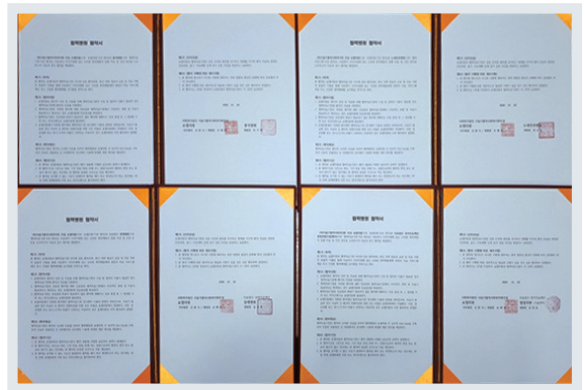
## 요셉의원 소식

### 인근 6개 병원과 협력병원 MOU 체결

본원은 지난 1월 인근의 4개 중대형 병원과 협력병원 MOU를 체결하고, 본원에서 정밀검사나 입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기존 협력병원 관계에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이외에 이번에 협력병원으로 추가된 병원은 성애병원, 홍익병원, 필립메디컬센터, 누네안과병원으로, 병원 담당자 간 핫라인을 통해 환자 의뢰와 검사, 수술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선치료 후정산 등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력병원장들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의 의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해 협약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본원은 현재 약 16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외래 중심 진료여서 입원 치료는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원에서 할 수 없는 특수검사(CT, MRI 등)나 응



본원은 지난 1월 주변 지역 4개 병원과 협력병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진료 협력 강화에 따라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 치료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 진료 예약 문자메시지 호응도 높아

“전화번호 바뀌면 바로 알려주세요”

병원 진료 예약과 진료시간 변경 등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원 의무기록팀은 예약 관련 전용 전화 회선(02-2068-1760)을 확보해 지난 달 15일부터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문자 발송 서비스에 등록된 환자는 약 1300명으로, 진료 예약 알림과 함께 진료시간 변경, 추가된 진료과 등 진료 관련 변경 사항을 전달받는다.

본원 윤은숙 의무기록팀장은 “전부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하려다 원내 사정으로 미뤄졌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거나 진료 시간과 요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저 설 연휴가 끝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로동 쪽에서 전철을 타고 본원을 찾다는 환자 유모씨(65)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휴진을 하거나 진료가 단축되면 병원에 와서야 공고를 보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며, “이제는 전화로 진료시간을 확인해 예약을 한 뒤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기뻐했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는 내원 환자도 늘었다. 예약 날짜와 시간을 잡아주고 하루 전 날 오후에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므로 이튿날 잊지 않고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예약 환자가 본원에 와서 접수를 하면 일반 병원처럼 대기실 모니터



급을 요하는 수술환자 등은 안전망 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해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있어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옮겨가도 본인 부담금을 내지 못해 또 다른 의료사각지대가 돼 있었다.

본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간헐적으로 지원해 오다 이번에 협력병원을 확충하면서 모든 진료비와 수술비 등을 본원에서 전액 부담해 먼저 치료를 받게 하고 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급성중수염을 앓던 임모(57세, 남) 환자가 협력병원인 성애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고, 심근병증을 앓던 한 환자는 음압병실이 있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본원에서는 환자가 협력병원 등에 입원하면 퇴원할 때까지 필요한 도움을 주고, 퇴원 후 거처가 없는 이들은 단기 거주시설인 '목동의 집'이나 '요셉의 집'에 입주해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저녁진료가 3월 25일부터 재개됐다. 진료 재개는 봉사 오는 의료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문자 메시지로 모든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 3월 25일부터 저녁진료 재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시간 단축이 반복됨에 따라 본원에서도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레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아 3월 25일부터 저녁진료를 재개하기로 했다. 각 진료

과의 진료 재개는 본원의 결정보다는 봉사를 오는 의료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이 본원에 봉사를 오고 싶어도 소속 병원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진료 지원을 금지하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본원 간호팀에서는 의료봉사진 80여 명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확인하고, 의무기록팀에서 메시지를 통해 12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그리고 1차로 확인된 월 진료 예정표는 본원 홈페이지와 대기실 게시판에 공지한다.

신완식 의무원장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정부 지침을 참고하고 의료봉사진의 상황을 감안해 진료과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 예약 시간이 나타난다.

본원에는 장기 투약 환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처방 약을 받은 뒤 2주 혹은 한 달 뒤로 예약을 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다. 현재 본원 건물은 공간이 비좁아 일부 대기환자들이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게 되고, 병원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예약제 실시로 대기 줄 길이가 좀 줄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은 “그동안에는 환자들이 전화기를 분실해서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예약제가 잘 될까 의문도 있었으나 실제로 해보니 진작 실시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의무기록팀에서는 요즘 환자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라는 당부를 인사처럼 하고 있다.

의무기록팀에서는 요즘 환자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라는 당부를 인사처럼 하고 있다.

사진 ①은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②는 환자 대기실 모니터에 표시된 예약자 명단. 진료 예약으로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3월 12일 (금) 예약 명단

이름	시간	진료과목	진료실
우*현	오후 1시 40분	내과	1 진료실
이*원	오후 3시 00분	정신의학과	1 진료실
유*문	오후 3시 30분	내과	1 진료실

## 본원, 정기적으로 자체 코로나19 검사

본원 임상병리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1월 말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4회 실시된 검사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대상자들은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 사이의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재근 본원 임상병리팀장이 검사 키트로 피검자의 입과 코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 전문 검사 분석기관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로 보내면 이튿날 감염 여부를 통보해 준다.

본원이 위치한 쪽방촌은 보건의로 취약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환자와 무료 봉사를 오는 의료진들을 위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불편함을 감내하며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의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본원을 찾는 환자자와 의료진들에게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쪽방촌 주민들이 많이 찾는 본원의 직원과 봉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한편으로 쪽방촌의 ‘코로나 안전도’를 가능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 비접촉 체온계 구입해 현관서 측정



본원에서는 2월 말부터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던 기존의 피부 열 감지기를 비접촉 체온계로 바꿔 환자들과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체온계는 10cm 정도 앞에서 손바닥을 내밀면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신호와 함께 체온이 표시된다. 만약 체온이 섭씨 38도

를 넘을 경우 빨간 불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다.

본원 1층 현관에서는 환자가 오면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뿌린 다음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2층 진료실로 올라가도록 한다. 때문에 보통 세 명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이번 체온계 도입으로 봉사자 일손을 하나 줄일 수 있게 됐다.

## 본원 대표 메일과 후원 메일 변경

본원 대표 메일과 후원 관련 메일을 병원 홈페이지 도메인과 같은 도메인을 쓸 수 있도록 변경해 온라인 상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본원 기획실에서는 기존의 병원 도메인을 활성화해 사내 메일과 메신저를 통합 운용하면서 이번에 대표 메일과 후원 메일로 새롭게 바꿨다. 대표 메일은 [info@josephclinic.org](mailto:info@josephclinic.org), 후원 관련 메일은 [donation@josephclinic.org](mailto:donation@josephclinic.org)로 쓰게 된다.

앞으로 본원의 진료와 봉사, 각종 프로그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표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후원금과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후원 관련 사항은 후원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 2021년도 1차 장기후원 감사장 전달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의 열정 어린 협조로 운영되는 본원은 그동안 장기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개원기념일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는 매년 분기마다 직접 후원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원 후원관리팀에서는 현재 장기 후원자를 20년, 15년, 10년으로 구분해, 각 해당 연도에 속하는 장기 후원자들에게는 감사장과 편지를 보내고, 후원한 지 5년이 된 분들에게는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 감사장은 본원 후원관리팀이 연락을 해서 받았다고 동의를 한 분들에게만 전



본원 김재근 임상병리팀장이 현장체험을 나온 신학생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달한다.

지난 해 9월에는 2020년 기준 장기 후원자 235명에게 감사장과 감사메시지를 보냈고, 올해 3월에는 20년, 15년, 10년 장기 후원자 38명에게 감사장을, 5년 장기 후원자 196명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승덕 후원관리팀장은 “2011년 10월에 후원을 시작한 한 가족 네 명 모두에게 감사장을 보냈더니 감사장을 받은 자녀들이 매우 기뻐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혹시 장기 후원자에 해당되는데도 감사장을 받지 못한 분은 전화(070-4688-3416)나 메일(donation@josephclinic.org)로 연락해주시라”고 당부했다.

### 3개 교구 신학생 7명 현장체험

코로나19로 의료 봉사자나 일반 봉사자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본원에는 천주교 각 교구의 신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나와 봉사자들의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이번 3월에도 일곱 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 신학생들은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삶과 사랑,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후일 사제가 된 뒤의 사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전교구에서 온 이교회(도미니코) 신학생은 “소중한 사목체험 기간에 어떤 체험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고, 마침 요셉의



코로나19로 병원에 나오기 어려운 봉사자들을 대신해 현장체험을 나온 신학생들이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각 부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학생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쪽방촌을 방문하면서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과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원을 다녀간 선배들이 좋은 체험을 할 것이라는 충고를 해 주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교회 신학생은 “환자 분들을 보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

라는 성찰을 하게 됐고, 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삶 안에 그 분들의 삶을 각인시키면서 인생을 보는 폭과 깊이를 한층 넓히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 2020년 수지보고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전기이월금	88,220	인 건 비	608,654
후원금 수입 (정기)	2,035,841	업무추진비	24,491
후원금 수입 (비정기)	83,840	운 영 비	118,275
후원금 수입 (지정)	330,696	시 설 비	64,787
후원금 수입 (현물)	181,849	자선진료사업	281,165
잡이익	11,979	환자돌봄 사업	349,438
고정자산 처분익	331,430	홍보행사 사업	16,032
		목동의집 사업	115,020
		요셉의집 사업	74,606
		해외의료 적립금	165,000
		시설 적립금 *	1,100,000
		차기이월금	147,387
합 계	3,064,855	합 계	3,064,855

\* 항목 변경 \_ 1) 2019년도 까지 '재개발적립금'에서  
2) 2020년도 부터 '시설 적립금'으로



## 봉사자 코너

## 틈틈이 본원 일손 돕는 쪽방주민 정유섭 씨

“이웃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요”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정유섭 씨는 일이 없을 때는 자주 본원에 들러 짐나르기, 가구 배치 등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를 말한다. 본원 바로 건너편 쪽방에 사는 정유섭 씨(51)도 요셉의원으로서 ‘귀한 이웃사촌’ 봉사자다.

본원은 정규 직원이 적다 보니 환자 진료에서부터 주방 일, 청소, 짐 나르기 등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파른 계단을 통해 환자들에게 나눔 할 의류를 나르거나, 각종 집기를 위아래로 옮기는 일도 버거운 일 중의 하나다. 정 봉사자는 본원에 이같이 부피 큰 무거운 물건이 들어오면 밖에서 보고 있다 바로 달려와 힘을 보태곤 한다.

“남보다는 힘이 좋은 편이라 무거운 물건 나를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드리곤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저도 가끔 요셉의원의 도움을 받고 있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요.”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간호팀에서는 가끔 거

동 못하는 환자를 2층 진료실까지 안아서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휴무일이나 공휴일에 택배나 우편물이 오면 대신 보관했다 전해주기도 한다. 본원에서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목요나눔을 했을 때는 줄서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했다.

“요셉의원이나 토마스의 집, 교회 등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할 때는 긴 줄이 서게 돼요. 이때 꼭 새치기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조용히 타이르다 안 되면 나이에 상관 없이 마구 야단칩니다. 그럴 때면 저도 속으로 마음이 아파요.”

정 봉사자는 본원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본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권하면 거절할 때가 많다. 그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는 90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다, ‘얼어 먹는 다’는 인상을 주기 싫기 때문이다.

## 영등포 쪽방 20여 년 토박이

정 봉사자는 본원이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곳 영등포로 이전한 이듬해인 1998년에 쪽방촌에 들어왔다. 올해로 23년째 한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다. 처음에는 병원이 하나 있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다 4년 전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본원과 부쩍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가끔 편찮으신데 마침 요셉의원이 바로 문 앞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집 앞의 눈을 치우다 요셉의원 앞까지 쓸게 되면서 이웃 간의 정이 더 도타워졌다고 할까요.”

정 봉사자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 쪽방촌에 들어왔다. 고교 졸업 후 백화점에 입사해 청과 파트에서 일했던 그는 여행사로 직장을 옮겨 동남아 지역 관광객을 인솔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 등에서 막노동을 했다. 바로 이 시기에 쪽방촌에 들어왔다.

“젊어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생각지 못하게 카드빚까지 지게 됐죠. 원금은 1000만 원도 안되는데 이자가 2000만 원이 넘더군요. 이리저리 힘들게 버티다 2012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정 봉사자는 주변에서 효자로 소문나 있다. 2013년 부친 사망 후 10년 위인 누님이 홀로된 어머니를 모셨으나 모녀간 의견 차이로 아들인 정 봉사자가 모친을 봉양하게 됐다. 무릎 연골이 닳아 거의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모친은 아들이 장을 봐오면 찌개를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고, 밥은 아들이 지어 함께 식사를 한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전일 근무 일은 못 하고, 주변 복지시설에서 한 달에 보름 정도씩 반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을 벌면 어머니의 수급비 75만 원이 잘리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20여 년을 영등포 쪽방촌에 살다 보니 예전 주민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곳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대체로 아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안 보이면 이사 갔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 이곳에 들어온 초기에는 하루에 병원 앰블런스가 10대 이상 들어올 만큼 폭력사태가 잦았으나,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줄었다는 것.

정 봉사자는 “재개발을 앞두고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어디로 이사가지 않고 가까이 사는 한 요셉의원과 이웃 간 정을 잘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자 스토리

### 침샘 질환 앓는 조선족 김군룡 씨

“‘코로나’ 끝나면 농산물 유통으로  
자립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우리 말을 아는 조선족 동포들이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개중에는 사업에 성공해 윤택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병고에 시달리거나 형편

이 좋지 않은 이들도 없지 않다.

본원을 통해 안전망 병원인 보라매 병원에서 침샘 제거 수술을 받는 김군룡 씨(44)는 두 번째 사례에 속하는 환자다. 중국 하얼빈이 고향인 김 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1세 때 결혼한 중국인 아내와 이혼한 뒤 한국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왼쪽 혀 밑 침샘에 결석이 생겨 붓고 아파서 20년 전에 하얼빈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1년에 취업 차 한국에 온 뒤 얼마 전 병이 다시 도져서 아는 분을 통해 요셉의원을 소개받아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요셉의원 측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전원시켜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며, “음식을 삼키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부친이 하얼빈 시청 과장급 공무원이어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던 그는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삶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3년 간의 군 복무 뒤 마땅한 취직자리를 얻지 못하자 부친의 도움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며 사회에 첫 발을 디뎠다. 당시 21세였던 그는 5년 연하인 동네 중국인 처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아내가 아직 성년이 안돼 한참 뒤에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문화가 다른 중국인과의 혼인을 말렸으나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헤어질 수가 없었다.

노래방 개업 보름 뒤 그는 노래방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 칼로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고 보름 만에 깨어났다.

“2011년에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뒤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자는 마음에서 아내를 고향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울산의 조선업체 도장반에 들어가기 위해 9개월 동안 학원에서 기초 기술을 익힌 뒤 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처음 1,2년 동안은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데도 보름치 월급이 75만 원 정도로 적었다. 그러다 사다리차를 타고 높은 곳을 칠하고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수입은 월 80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결국 일터를 떠나야 했다.

“마침 막내 고모가 충북 진천에 살고 계셔서 거처를 진천으로 옮겨 지금까지 6,7년 동안 공사 현장 등을 찾아 막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일을 할 수 있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지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일 년 치나 밀렸다. 얼마 전 왼쪽 혀 밑이 다시 부어 일반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수술 치료에 300만~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을 소개받아 찾아오게 된 것. 몸도 아프고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아내와는 지난해 합의 이혼을 했다. 그는 “서로가 미워한다든가 하는 감정이 아니라 얼굴도 못 보고 헤어져 사느니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흔쾌히 떠나보냈다”며, “다행히 아내가 물류 일을 잘 하고 있어 본인 생계는 걱정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이 잘 끝나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중국에서 참기름이나 들깨, 냉동고추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유통업을 해볼 계획”이라며 부푼 희망을 내비쳤다.

## 후원의 손길

### 두 아들의 후원 대열에 합류한 최은희 씨

#### “3년 약정으로 건축 후원금 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본원의 이전 혹은 재건축과 관련해 후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두 아들에게 용돈을 쪼개 본원에 후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성적이 오르면 요셉의원에 후원을 하자’는 권유를 하고 있는 최은희 후원자(분당 오름수학 학원 운영, 본원 소식지 2020년 11월 113호 ‘후원의 손길’에 소개)가 최근 3년 약정으로 건축 후원금을 내겠다고 전해 왔다.

최 원장은 “소식지 등을 통해 살펴보니 요셉의원이 앞으로 어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지를 결정하는데

3년은 걸릴 것 같아 그동안 적은 돈이라도 건축과 시설 마련에 보태시라는 의미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곳을 찾아 기부하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본인의 학원은 여러 학원의 빈 강의실을 빌려 쓰곤 하다 이번에 작은 ‘둥지’를 하나 마련했다고 한다.

최 원장은 “수강 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요셉의원 얘기를 하자 개중에 자기들도 건축 헌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성적이 오르면 후원을 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부를 할 지는 올해의 성적을 보고 학생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

- 강용건 ● 강인숙 ● 강창은 ● 강한솔 ● 고경숙 ● 고정원 ● 고지원 ● 고휘 ● 권지윤 ● 김경실 ● 김경자 ● 김남자 ● 김동은
- 김문정 ● 김미숙 ● 김보광 ● 김상조 ● 김선형 ● 김성배 ● 김성희 ● 김수연 ● 김신혜 ● 김영민 ● 김영태 ● 김용석 ● 김인영
- 김일호 ● 김주원 ● 김주현 ● 김형석 ● 김형준 ● 김형진 ● 김혜숙 ● 김효성 ● 김훈민 ● 김흥국 ● 남선영 ● 남해덕 ● 문제용
- 문서용 ● 박명희 ● 박미숙 ● 박상은 ● 박세빈 ● 박수진 ● 박영희 ● 박정순 ● 박준희 ● 박지현 ● 박현정 ● 배현미 ● 서지수
- 소병우 ● 소병훈 ● 손문자 ● 손민수 ● 송경화 미카엘라 ● 송자연 ● 신오섭 ● 심미숙 ● 안종현 ● 양남선 ● 양아름 ● 양용하
- 양증은 ● 오정현 ● 오종찬 ● 오혜원 ● 유서영 ● 유재명 ● 윤혜미 ● 이경탁 ● 이기호 ● 이나영 ● 이미숙 ● 이미정 ● 이병욱
- 이서윤 ● 이서후 ● 이안례 ● 이영애 ● 이유진 ● 이임순 ● 이재윤 ● 이재홍 ● 이재훈 ● 이정미 ● 이주봉 ● 이준호 ● 이지은





●이창훈 ●이혁준 ●이혜선 ●임만규 ●임현정 ●장동우 ●장은우 ●장 정  
●장정인 ●전소영 ●전정은 ●전희전 ●정경숙 ●정다운 ●정미옥 ●정민수  
●정상덕 ●정재필 ●정채이 ●정학재 ●조우용 ●조윤희 ●조진희 ●조한서  
●지두현 ●채현례 ●최수정 ●최유미 ●최윤정 ●최은영 ●최은희 ●최지은  
●최향미 ●최현주 ●한병구 ●홍영애 ●홍윤석 ●홍인수 ●황영희 ●황용진  
●황지예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1년 1~2월)

●개봉동협의회 ●명일동성당 ●양천사랑복지재단 ●지노C&T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개봉동성당 : 떡 2포대 ●김현미 : 두유  
1상자 ●문제용·문선용 : 굴 2상자 ●박천수 : 쌀 20kg, 김치 1상자 ●박태균 : 라면  
1상자, 스팸 1상자, 참치통조림 1상자 ●보바스병원 : 과일 2상자 ●안에스더 : 한과  
1상자 ●영등포우체국장 : 배 2상자, 사과 5상자 ●우리은행영등포중앙센터 : 과일  
1상자 ●이정희 : 햇반 41상자, 스팸 10상자 ●익명 : 쌀 20kg ●조성희 : 김치 1상자  
●(주)성사 : 한라봉 20상자 ●(주)스파일 : 두유 1상자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1년 1~2월)

●김건환 : 옷 1상자 ●김미순 : 옷 1상자 ●김미영 : 옷 1상자 ●김재천 : 옷 1상자  
●김정순 : 옷 2벌 ●돈암동성당 : 옷 1상자 ●박은경 : 옷 1상자 ●박주설 : 상자, 옷  
1상자, 가방 2개 ●신혜빈 : 수면바지 1상자 ●이랜드복지재단 : 팬티 3상자 ●익명 : 옷  
3상자 ●정문숙 : 옷 2상자 ●정영수 : 옷 1상자 ●카푸친 수도회 : 옷 3상자 ●표희수 :  
옷 1상자 ●하영대 : 옷 3상자 ●햇살따뜻한집 : 옷 1상자 ●홍인주 : 옷 1상자

###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월~2월)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5종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월~2월)



●김태영 : 핫팩 3상자 ●동혁 : 화장품 1상자 ●송근교 : 커피포트 1개 ●양천사랑복지재단 : ●마스크 48상자 ●영등포우체국장 : 치약  
1상자, 비누 3상자 ●이동우 : 커피와 차 1상자 ●이승연 : 온풍기 2상자 ●익명 : 마스크 1상자 ●지노C&T : 차 2상자 ●최민아 : 마스크 1상자  
●카프성모병원 : 핫팩 1상자 ●한솔인티큐브  
인재개발팀 : 치약 50개, 비누 300개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나오신 분

● 의 사 : 강현아(피부과)

배선량(안과)

정인주(영상의학과)

● 일반봉사 : 서희정

● 신학생 현장체험

- 서울대교구 / 김대건 미카엘,  
최진혁 마르코(3.15~6.30)

- 광주교구 / 김성철 마태오,  
김수환 마르티노,  
김형률 야고보(2.22~7.16)

- 대전교구 / 이교회 도미니코  
(3.2~8.17)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부산 초원의 집
- 안산빈센트의원
- 쪽방나눔(누계 800 가구)
- 카프병원
- 토마스의 집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1년 1월	553명
2021년 2월	504명



개원 이후 총 진료 환자수(2021년 2월 말 현재)

**704,779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 2 코린 8, 7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여 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